



CVX CLC
Christian Life
Community
in USA

월간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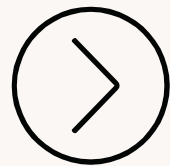


2026년 9월

하느님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

공동체, 사명, 그리고
새로운 움직임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역 소식, 국내 소식,
프런티어 소식, 행사
및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는 각 공동체가 청년 서밋(Young Adult Summit)을 통해 받은 은총을 계속해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CLC-USA 전역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조명합니다. NKCLC 시카고의 침묵 피정에서 이루어진 서약 갱신부터 DH (동한) 사우스 웨스트의 이냐시오 축일 기념행사, 보스턴 공동체의 봉사 활동, 그리고 아이티 이주민들과의 전국적 연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들은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며 식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CLC 정관과 통칙에 관한 제2차 자문 과정에 동행하며, Hilda Uribe 회원님을 위해 기도하고, 글로벌 양성팀(Global Formation Team)이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월은 우리를 더욱 깊은 공동체적 유대와 공동의 실천, 그리고 지속적인 이냐시오 영성 양성으로 초대합니다.

주요 행사 안내

09

9월 9일
오후 12시
동부시간

Pierre Damas Bel 과 이주민
연대를 위한 온라인 기도

21

9월 21일
저녁 8시
동부시간

세계화와 빈곤 프런티어 월례 기도

Pray | Remember | Act

A Virtual Vigil for Pierre Damas Bel and Migrant Solidarity

Wednesday, September 9

12PM ET/9AM PT | VIRTUAL

Register: igsol.net/together



아이티 이주민을 위한 기도와 실천

이번 9월 9일 수요일, 오후 12시(동부시간) 및 오전 9시(서부시간)에 열리는 이냐시오 연대 네트워크의 온라인 기도회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의 아이티 공동체와 미국 전역의 이주민들과 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기억하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온라인 기도회에서는 Pierre Damas Bel을 추모하고, 고통과 인간 존엄성의 훼손, 절망을 초래한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도, 기억, 실천

Pierre Damas Bel 과 이주민 연대를 위한
온라인 추모 기도회

9월 9일 수요일

오후 12시 동부시간 / 오전 9시 서부시간

온라인 추모 기도회 등록:

<https://streamyard.com/watch/bHdgQgKa7Wbb>

이번 기도회에서는 Damas Bel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미국 내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보호 조치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며, 이주민과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 슬픔을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이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ou pa pou kont nou.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IN LOVING MEMORY



HILDA URIBE

9월 2일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Hilda Uribe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델러스 CLC 공동체 회원인 Carmen Castagno께서 다음과 같은 따뜻한 추모의 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매, Hilda Uribe는 9월 2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몬세라트 피정의 집 (Montserrat Retreat House)의 예수회 Derek Vo 신부님께서 지난 금요일 Hilda를 방문하여, 우리 모두가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주시고 병자성사를 주셨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1958년 성모회(Sodality)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때와 CLC에서 걸어오신 여정에 대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기꺼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Hilda가 오랜 세월 충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오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분들에게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녀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그녀를 당신 따뜻한 품에 안아 주시고, 그녀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에 축복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기도합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지난 7월 31일, 이냐시오 영성 센터(Ignatian Spirituality Center)에서 성 이냐시오 축일을 기념했습니다. CVX-CLC 회원들과 지역의 여러 예수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후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사 말미에는 이냐시오 영성 센터의 책임자인 예수회 Jorge Rojas신부님께서 오랫동안 센터를 위해 봉사해주신 우리 교회 지도신부이신 예수회 Marcelino Garcia신부님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오는 10월 10일에 열리는 지역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오늘의 도전 안에서 하느님 찾기(Finding God in the Challenges of Today)"입니다. 우리는 카리브 관구 소속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예수회원이자 사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Antonio Masferrer 신부님을 특별히 초청할 예정입니다. Masferrer 신부님의 안내로 교황 레오 14세의 첫 회칙인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공지능(AI)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AI를 어떻게 지혜롭고 책임감있게 사용 할 수 있을지 성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행사일정

- 9월 14일 - 온라인 코디네이터 회의
- 10월 10일 - 지역 총회:
"오늘의 도전 안에서 하느님 찾기"
- 11월 5-8일 - 마이애미 NCC 회의
- 12월 - 성탄 축하



시카고 KCLC 연중 침묵 피정



2026년
8월 5-9일

시카고 KCLC는 일리노이주 리버티빌 메리타운에서 배 베드로 예수회 신부님의 지도 아래 4박 5일간의 침묵 피정을 마쳤습니다. 19명의 CLC 회원과 9명의 일반 신자를 합한 총 28명이 침묵 기도, 성찰 그리고 영적 회복에 깊이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정 마지막 날, 파견 미사 중에 18명의 회원들이 첫 유기 서약식을 하거나 유기 서약 갱신식을 하였는데, 서약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은총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성 이나시오 축일 축하식



시카고 KCLC 그룹 사진

7월 26일, 시카고 KCLC 회원들이 로올라의 이나시오 성인 축일을 기리기 위해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모였습니다. 약 40명의 회원들은 식사를 시작으로 동료애를 나누며 축일을 축하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마니피캣 공동체(Magnificat Team)를 위해 특별한 깜짝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다섯명이 지원기를 시작하면서 이 팀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들은 2001년 첫 유기 서약을 한 이후, 2007년 7월에 5명이 모두 종신 서약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시작 된 그때부터, 그들은 CLC의 여정을 충실하게 함께 이어 오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니피캣 공동체는 새 CLC 공동체를 위한 돌봄과 동반으로 그들 스스로의 충실함을 넘어 시카고 KCLC의 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대함과 헌신 그리고 증언은 수 년에 걸쳐 많은 청장년층 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카고 KCLC는 59명의 회원들이 11개의 공동체를 이루고 CLC 생활 양식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마니피캣 공동체의 확고부동한 헌신과 기쁨에 찬 봉사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그 팀은 시카고 KCLC의 희망이며 등대라고 우리 회원들은 말합니다

이 마리아 의장님의 "성 이나시오와 AI" 발표를 통해 우리 공동체는 더욱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회칙인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를 바탕으로 한 이번 발표는 참석자들이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AI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나시오 영성을 통해 길러지는 침묵, 식별 그리고 영적 자유가 우리가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 이나시오 성인의 삶에 대한 활기찬 퀴즈로 성인의 축일 축하를 마무리했습니다. 학교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퀴즈는 우리를 즐거운 학창 시절로 데리고 갔습니다. 회원들은 웃으며 즐겁게 대답을 했지만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시험일의 긴장도 함께 느꼈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를 동료애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동시에 이나시오 성인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즐겁고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시카고 KCLC 마니피캣

DH(동한) CLC 사우스 웨스트

오렌지 교구
크라이스트
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성모 마리아의 날
(Marian Days)



올해 DH (동한) CLC
사우스 웨스트 공동체가
함께한 친교 및 봉사 활동
가운데 하나는 오렌지
교구의 성모 마리아의 날
(Marian Days)
워크숍의 발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봉사였습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이 워크숍은
'성모님과 함께 언제나
앞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DH(동한) CLC 사우스 웨스트



오닐 리저널
파크 (O'neil
Regional
Park)에서
함께한
성 이냐시오
축일

DH (동한) CLC
사우스 웨스트에서는
성 이냐시오 축일을
지역 캠핑장에서
공동체 피크닉과 함께
기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 이냐시오 축일이
있는 주말에 캠핑장을
예약하여, 축일을 즐거운
친교와 휴식, 그리고 이냐시오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KCLC ATLANTA



2026 애틀랜타 KCLC 서약식

애틀랜타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KCLC)는 전 한인순교자성당 주임신부님이자 영적 동반자로 함께한 안정호 이시도로 신부님과 함께 뜻깊은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2026년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을 맞아 돌루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안정호 이시도로 신부님의 "영신수련: 식별을 위한 지침 [영신수련 169번]과 식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에 관한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서약 미사**가 봉헌되었으며, 미사 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서약식에서는:

종신서약 (3명):
김영보 카타리나,
이혁륜 모니카,
최문영 사도요한

유기서약 갱신(8명):
김미영 엘리사,
김은실 세실리아,
김월수 마리아 막달레나,
박영애 실비아,
송사진 켄마,
신은영 제노베파,
전경희 요안나,
조경은 소화 데레사



CLC-USA 공동체 가이드 양성

가이드를 위한 피정, 피츠버그 펜실베이니아

2026년 8월 20-23일

아, 참으로 은총이 가득하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리더들과 피정 참가자들이 보여준 아낌없는 헌신과 나눔에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의 현존과 그 안에서 받은 많은 은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여정은 공항에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정 센터에 도착하여 함께 자리를 잡고 일정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Zoom을 통해서만 서로를 만나왔기에, 마침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한 3일 동안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현존은 더욱 특별하고 생생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에는 아쉬움이 컸지만, 이것은 잠시 동안의 작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다졌으며,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돕는 **가이드(Guide)의 역할과 그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이드로 봉사하라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우리의 투신과 사명을 함께 식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LC USA 양성 리더인 **Lois Campbell, Ann Marie Brennen, Liem Le**의 인도 아래, 참가자들은 가이드로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가이드 동료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Ann Marie Brennan, Kasia Burzynska, Lois Campbell, Deb Flynn, Francesca Kim, Gabriela Kim, Jerry LeCarpentier, Liem Le, Sidonie Lyeb-Bikai, Flora Lopez, Pat Michiewicz, Tamuyn Nguyen, Christina Oh, Anne Papinchak, Soyon Park, Katharine Winslow, I-Fong Wu, Agness Yoo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일상생활 속 영신수련을 통해 개인이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목적과 과정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장해 가는 과정과 단계와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발행될 Harvest에서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직접 경험한 여정과 그 안에서 받은 은총을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성 프란치스코 기념 반려동물 축복식

10월 성 프란치스코 축일을 기념하여,
미국 전역의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회원들이 사랑으로 돌보는 반려동물과
소중히 간직한 봉제 인형의 사진을 모아
밝고 즐거운 사진 콜라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나 특별한 의미가
담긴 봉제 인형의 사진을 가족 프런티어
(Family Frontier) CLC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familyfrontier@dc-usa.com

10월 기념행사를 위한 사진 콜라주와
갤러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9월 13일
일요일**까지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성 프란치스코 축일은 **10월 4일**이며,
올해는 성인의 선종 8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 성인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기리기에 더욱
뜻깊은 때입니다.

감사드리며,

Barb Rudolph, Mary Wescovich

가족 프런티어 (Family Frontier)



Christina Kim과 세계 양성팀을 위한 기도



Christina Kim과 세계 양성 팀은 최근 글로벌 이냐시오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작업을 위해 스페인 마요르카의 산 알론소 로드리게스 영성의 집 (San Alonso Rodríguez House of Spirituality)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시간에서 맺어진 열매와, 한 몸을 이루는 평신도 이냐시오 사도적 공동체로서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Christina와 모든 팀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 세계 공동체를 위해 보여주신 그들의 헌신과 식별,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사명을 굳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기쁨으로 그들의 작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보스톤 CLC 함께 봉사하기



보스톤 성 이냐시오 CLC, 케임브리지 성 바오로 CLC, 그리고 DH(동한) CLC 노스이스트 회원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이웃들에게 저녁 식사를 배식하고 봉사하기 위해 폴리스트 센터에 모였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된 공동의 봉사, 친교, 그리고 이냐시오 사명의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트 코스트 CLC 공동체**를 계속 세워나가고 지역 간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성령께서 다음으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계속 분별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서밋 후기



하나의 몸, 하나의 사명



3년 만에 Ignis 서밋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봉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나누는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마음만은 청년인 분들을 만날 수 있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아름다운 길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 Paulina Vu



청년 서밋은 저에게 깊은 회복과 에너지를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영감을 주는 강의부터 아름다운 기도 체험에 이르기까지, 주말 내내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 사랑 넘치는 공동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 Jason Vu



제가 받은 가장 큰 은총 중 하나는 생동감 넘치는 CLC 공동체의 열정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과 우정을 쌓고 서로 연결될 수 있어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또 다른 은총은 Ignis 팀의 일원으로서 모든 참가자들의 놀라운 몰입과 참여를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모아 경청하고, 중심을 잡으며, 수많은 이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청년 공동체를 향한 걸음을 함께 내딛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Dan Nguyen

계속해서 꿈 꾸십시오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특히 가톨릭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열아홉 살 무렵 예수회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가 속하게 된 모든 본당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가장 간절히 찾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청년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2023년 MAGIS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하면서 이냐시오 영성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냐시오 영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서밋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모임이 청년들을 위한 피정에 더 가까운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 어떤 면에서는 분명 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밋은 청년 모임을 이끌어 가는 일에 초점을 둔 자리였습니다.

이 경험은 아직 한곳에 정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세상을 더 탐험하고 싶어 하는 저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본당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청년 사목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서밋에서 우리는 청년 모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할 때마다 이러한 도구와 배움을 지니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서밋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공동체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곳이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느꼈고, 내가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우리는 마치 훨씬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함께 성장하고,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곁에 있다는 사실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청년들이 성장하고 배우며 기도하고,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준 CLC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Carmela Feoli



꿈을 위해 용기를 내다



젊은이들은 대담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용감하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도 바로 그런 정신으로 이번 서밋을 경험하도록 초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번 서밋은 삶의 큰 전환기를 지나던 때에 찾아왔습니다. 막 출산을 한 뒤였고, 서밋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중이었습니다. 제 한계를 크게 느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도 많았고, 기여하고 싶었던 방식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KCLC에서 이번 서밋에 참여할 청년이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 된 아기를 집에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제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 또한 하나의 봉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많이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맡기며, 그분께서 제 앞에 놓아 주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KCLC에서 세 명의 멋진 청년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밋에 참석하는 동안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일정을 조정했고, 어머니도 한국에서 오셔서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머물며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선에 두고 그분을 신뢰하려 애쓰자, 하나씩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 제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초대하셨고, 용기를 내는 것뿐 아니라 내려놓는 법도 배우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때입니다. 좋은 위험, 희망으로 가득한 위험을 감수하는 시기입니다.”

저 역시 이번 서밋을 매우 ‘젊은’ 방식으로 경험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고,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기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이었습니니다.

제가 청년들과 동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제가 그들보다 더 성숙해서도, 더 많이 알아서도, 이미 길을 다 알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저 역시 여전히 식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삶 안에서 하느님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법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한계를 안고 주님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들과 동행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 서기보다 가까이 머물며 귀 기울이고, 함께 식별하며, 하느님께서 이미 그들의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청년 사도직 안에서 하는 일은 작아 보이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서밋을 통해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야말로 지금 주님께서 제게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선배 세대의 따뜻한 지지를 느끼고, Ignis친구들이 제 곁에서 함께 걸어 주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고, 하느님께서 이미 이 사도직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은총 안에서 굳건히 서다

청년 서밋 주말을 앞두고 제 마음은 많이 흔들리고 불안했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솔직히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CLC-USA와 통합한 후 처음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떤 모습이 될까? 사람들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비전에 공감할 수 있을까?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로운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

하지만, 주말이 시작되면서 그런 불확실함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열린 마음과 귀, 그리고 눈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나누며, 진심으로 서로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청년 사도직과 관련된 저마다의 이야기와 여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배경은 달랐지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환영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지지받고,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도전 주는 이야기도 있었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으며, 청년 사도직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새롭게 바라보게 해 주는 관점들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영감은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늘 해 오던 방식 가운데 일부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깊이 경청하며, 언제나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말 내내 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김을 요청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대화와 결과, 모든 순간을 제가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과의 대화와 관계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제가 있게 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어떤 대화는 의도적으로 시작되었고, 어떤 대화는 뜻밖에 찾아왔지만, 그 하나하나가 서밋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의 한 부분을 보여 주는 듯했습니다.

이번 경험에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은총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시기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답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밋에 참석했지만, 돌아올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준비는 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이 청년들을 섬기고 싶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도직은 어느 한 사람이 혼자 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도록 부름받은 일입니다.



이번 서밋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단순히 유지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꿈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청년 사도직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청년들을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교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목소리와 재능, 질문과 경험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이번 주말을 마쳤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계속 이어 가야 할 대화도 있고, 발전시켜야 할 아이디어도 있으며,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주말 동안 제가 받은 가장 큰 초대는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제 곁에 보내 주신 사람들을 신뢰하며, 전체 모습을 아직 볼 수 없더라도 성령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직의 책임을 제가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마음으로 서밋에 왔지만, 돌아갈 때는 마음 깊이 단단히 뿌리내린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를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밋은 완성된 계획의 출발점이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정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성찰

이번 청년 서밋에 참여한 것은 제게 큰 은총이었습니다. 특히 DH(동한) CLC의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CLC의 삶의 방식 안에서 양성되고 빚어져 왔으며, 그로 인해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저 역시 CLC에 대한 헌신의 삶을 계속 묵상하도록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정에 함께한 이들과 의도적인 신앙 나눔, 문제 해결, 그리고 비전 계획을 통해 서로 동반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공동체의 깊이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ngelique Jean-Noel

이번 서밋에 오기 전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올여름은 일과 가족, 친구들, 여러 활동으로 매우 분주하게 흘러갔고, 서밋 주말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정확히 어떤 자리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직후부터 저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그 환대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서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누면서, 이내 모두가 한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임 안에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한 생각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을 마치며 보스턴 CLC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여러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서밋에서 만난 아름다운 가족들과 앞으로도 계속 연결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 Stefania Bonanni